

협회소식 kira news

2005전국건축사대회

6월 24, 25일 BEXCO에서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되어 건축사 대단합의 장을 열게 된다.

약 12년 만에 부활하는 이번 대회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5천여 명의 건축사와 회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건축행사로서 건축사그림전시회, 워크숍, 세미나를 비롯해 '건축경기활성화 및 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이 이루어진다.

전국건축사대회의 개막식은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대회 기간 동안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연계되어 개최됨으로서 침체된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와 건축사 이미지 제고에 아주 큰 역할을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건축사대회를 준비해 온 부산건축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증진시키고, 도시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 스스로에게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다짐하는 선언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국건축사대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호 우리협회 회장은 "2005전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건축사의 실추된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 설계검업 허용정책을 원천봉쇄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 및 시·도 건축사회 회장단은 전국건축사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건축행정업무의 전문화와 편의 도모를 위해 '건축전문 해당부서'의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문의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051-633-6677

〈대회일정표〉

일 차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 고	
1일차	11:00 ~ 11:30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막식	백 스 코		
6월 24일 (금)	10:00 ~ 19:00	시·도대항 추구대회 /건축사회화전	북구구민운동장 /전시실		
	20:00 ~ 21:00	조직위원회	그랜드 호텔	22:00 전채리하설	
2일차 6월 25일 (토)	10:00 ~ 10:30	2005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그랜드호텔 회의실	언론기관참석	
	10:30 ~ 12:20	국제건축 심포지움	그랜드호텔 회의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건설사업관리(CM) 세미나 제1주제 : CM 그리고 건축사 업무영역의 확장 제2주제 : 건설사업관리(CM) 적용사례	백스코 202호	대한건축사협회	
	12:30 ~ 13:30	중식 및 자유시간	백스코 광장	고적대 퍼레이드	
	개 회 식				
	14:00 ~ 14:50	패 션 쇼			
	14:55 ~ 15:05	초청인사 소개		단상임원 외 초청인사	
	15:05 ~ 16:00	집행위원장, 시도회장, 협회임원 고문, 부산시장, 국회의원 정당대표, 회장, 정부대표 입장	백스코 제1전시실		
	16:00 ~ 16:05	국민의례			
	16:05 ~ 16:10	환 영 사			
16:10 ~ 16:17	대 회 사				
16:17 ~ 16:24	치 사				
16:24 ~ 16:30	축 사				
16:30 ~ 16:45	건축문화혁신대회				
17:00 ~ 19:00	건축사 만남의 광장 2005전국건축사대회 결과 선포	백스코광장			
19:40 ~ 20:00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참관	백스코 3A전시실			
3일차 6월 27일(월)		청와대 방문	청 와 대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 약 50명	

제8회 이사회 개최

2005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5월 10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설계겸업 대처 T·F팀 명칭 변경의 건, 명예이사 위촉의 건, 상임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에 관한 건,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제명처리에 관한 건, 회관 지분관련 소송에 관한 건, 「건축의 날」 제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함.

현 행	개 정
제13조(현직 임원의 입후보) 현직 임원이 타직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 자 등록 전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단서신설)	제13조(현직 임원의 입후보) _____. _____. 다만, 잔여임 기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호의안 :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설계겸업 대처 T·F팀 명칭 변경의 건
 - 「설계겸업 대처 T·F팀」의 명칭을 「정책개발 T·F팀」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승인금액 : 8,500,000원)
- 제5호의안 : 명예이사 위촉의 건

- 협회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명예회원 및 명예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 : 상임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건
 - 상임이사제도는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선 사무총장제(가칭)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되 명칭과 임용시기 및 방법, 보수, 관련근거,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에 관한 건
 - 이사 중 3~4인을 선임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해당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3호 :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전국건축사대회 지원금은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세미나(6/25) 개최문제는 국제심포지엄과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5월 24일 합동준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제명처리에 관한 건
 -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34명)을 제외한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는 본협회에서도 제명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5호 : 회관 지분관련 소송에 관한 건
 - 본협회와 서울건축사회가 협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함.
- 제6호 : 「건축의 날」 제정에 관한 건
 - 「건축의 날」 제정에 따른 기본원칙과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FKA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2005. 5. 28 서울건축사회에서 주최하는 '2005 전국가족 한마음 서울사랑 걷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 제2회 홍보소위원회

2005년도 제2회 홍보편찬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24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회원 고무인 조각계획에 대한 건, 2005홍보 브로셔 제작에 대한 건, 2005년도 홍보계획에 대한 건, 컨벤션 이벤트 홍보(2005 경향하우징페어)에 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회원 고무인 조각계획에 대한 건
 - 공모를 통해 정회원 고무인 조각디자인을 선정하도록 함.
 - 공모대상은 본 협회 회원,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업무종사자로 제한하고, 시상내용은 당선작 1명 100만원, 우수작 1명 50만원, 가작 2명 30만원으로 정하여 공고하기로 함.
 - 고무인 조각디자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공모지침 작성은 박진훈 위원 담당책임 하에 진행함.
- 제2호 : 2005홍보 브로셔 제작에 대한 건
 - 5월 31일까지 홍보 브로셔 가편집안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접수, 이를 반영해 홍보 브로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제3호 : 2005년도 홍보계획에 대한 건
 - 지난 제1회 홍보소위원회('05. 4. 26)에서 제안된 안건(Agend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위원을 정하여 진행하도록 함.

- 1. 대외적 홍보(대국민 홍보로 인한 건축사 알리기와 위상강화)
 - 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건축분쟁상담 - 유종욱 위원
 - 나. 재난시 협회 봉사활동 및 스타건축사 양성 - 장양순 이사, 사무국
 - 다. 언론의 주요현안 이슈화 및 건축관계 바로잡기(각 언론사의 담당자와의 긴밀한 관계설정 및 체계적 관리 간담회, 기사선점 및 지원) - 곽진훈 위원(각 언론사), 전주희 위원(건축전문잡지)
 - 라. 컨벤션 이벤트 홍보 - 이규환 위원
- 2. 대내적 홍보(회원에게 협회 활동사항 홍보 및 협회의 유지와 발전)
 - 가. 신규 건축사 연수 - 본 협회 교육시협위원회
 - 나. 회원에게 협회 활동사항 홍보(회원이 원하는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효과적인 전달연구) - 차기 회의에서 협의
 - 다. 홍보위원회 회의록 책자발행 - 차기 회의에서 협의
- 3. 기타(생존권 위협대응 등) - 차기 회의에서 협의
 - 가. 건축계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연계연구
 - 나. 일상적인 건축관련 발생사항 예측과 대응에 대한 방향설정과 역할분담으로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 다. 기타 위원회와의 사안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신속대응
- 4. 홍보 소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함.
 - 제4호 : 컨벤션 이벤트 홍보(2005 경향하우징페어)에 대한 건
 - 구체적인 계획서를 이규환 위원이 담당 작성하여 경향하우징페어 사무국에 통보하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제1회 여성건축사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14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5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계획에 관한 건
 - 일시 : 2005. 5. 27(금)~28(토)
 - 장소 : 경기도 수원
 - 초청인사 : 우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회장, 경기도 지역건축사회 회장, 경기도지사, 경기도 내 관련인사
 - 행사내용 : 경기 수원지역 고건축(화성행궁, 현대건축물(회원, 연화장)견학, 특강(심리학 강의) 등

■제2회 설계검업 대처 T·F팀 회의

2005년도 제2회 설계검업 대처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업체 설계검업 관련 대처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건설업체 설계검업 관련 대처에 관한 건
 -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대처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함.
 - FIKA가 발주하고 건축학회(서울대 : 김광현 교수)가 수행하는 방안 검토
 - 국회 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우리협회가 토론회 참석자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강력히 항의키로 하고, 정장선 국회의원에게도 향후 우리 협회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 공문을 발송키로 함. 아울러, 가협회 및 학회에는 현 사항을 알

리고 협조를 요청키로 함.(4월 26일 관련 공문 발송)

- 진행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는 박종철 위원이 담당키로 함.

■건축문화혁신관련 회의

건축문화혁신관련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5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혁신 방안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건축문화혁신 방안에 관한 건
 - 건축 전반에 통합된 법을 만들기 위한 건축문화부 신설 필요
 - 건축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육성시스템 형성 필요
 - 건축관련법을 통합하기 위한 건축문화진흥법 제정 필요
 - 국제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이 필요함
 - 건축설계(허가)도서관리 및 통제시스템 개선 필요
 - 체계적인 건축시스템 구축 및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통한 관리 및 통제의 선진국화
 - 일반인이 쉽게 건축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건축문화방송국 개국 필요
 - 공무원과 건축사간의 협력시스템 정비 필요

■제3회 설계검업 대처 T·F팀 회의

건축문화혁신관련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7일 오전10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찬반토론, 대책추진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찬반토론

〈정부 측(설계검업 참여허용) 주장〉

- 건축사사무소를 기업화, 대형화, 시스템화해서 건축사의 생활안정 및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건설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30명의 건축사를 고용해야 자체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건설사의 자회사로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건축사사무소는 영세해서 건축문화발진이 가능한가?
- 일본, 미국 등에서는 건설회사가 설계를 검업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 설계검업을 반대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토론회를 통해 대응논리로 정리된 내용〉

- 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제 건축대학을 나온 신진건축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을 육성, 교육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 설계검업은 반시대적인 발상
 - 국가는 후진양성교육(신진건축사를 육성)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
- ② 건축산업은 문화지식산업으로서 개인의 작가적 능력에 좌우됨
 - 건축사 30명이 건설사에 고용되어 설계를 하게 된다고 해서 김기백, 화백과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 의사가 약을 잘 못 처방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건축설계는 결과물이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음(건축설계의 무형적 특수성)
 - 지식기반사업은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
 - 영화산업의 경우 스크린쿼터 제를 유지(정부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문화발전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함
- ③ 건설사가 설계검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은 "건축문화창달"을 하겠다는 것보다

"이윤추구"만을 하겠다는 것임

- 돈벌이만을 추구한다면 문화 창달이 되겠는가?
- 설계검업을 하지 못해 시장진입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 ④ 대형건설사 10여개 업체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 중견업체들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들게 됨
 - 구체적인 데이터 파악(위장계열사 조사, 건설회사의 약용사례, 자격대여 실태파악)
- ⑤ 건축사 30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계의 창작력보다는 엔지니어링(기술)에 의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교육과정도 이에 맞춰 다시 개편되어야 하는 것임
 - 교육제도를 5년제로 바꿔 창작(디자인) 위주로 개편한 것을 엔지니어링(기술) 위주로 다시 바꿔야하는 문제가 발생함
- ⑥ 건축설계시장을 사회주의처럼 바꾸려는 것인가?
 - 건축사가 건설사에 고용이 되면 창의적인 설계가 나올 수 없음
 - 일본의 제네콘사는 창작력에는 실패한 사례임
- ⑦ 건설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파트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사회시스템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함
 - 1995년~2004년 동안의 아파트 허가평균면적은 40.8%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대형건설사는 전체허가면적에 40.8%의 공사를 독식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몇 개의 대형건설회사만을 위한 정책방안임
- ⑧ 정책은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해야 함
 - 선진국은 일반인도 건축이 문화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건축이 문화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는 건축을 소유개념(부동산)으로 보고 있지만 외국은 일정기간 렌탈해서

사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공공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

- ⑨ 건설은 시스템화 되어야 하지만 건축은 시스템화 되기보다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건축문화창달이 가능함
 - 건설사가 자체 설계하겠다는 것은 싸구려 설계를 하겠다는 것임
- ⑩ 건설업체가 설계검업을 자기시공건물에만 한정하여 설계하겠다고 하지만
 - 건축허가이전에만 건설업체소유로 하고 허가이후에는 명의변경을 하면 소유건물 이외에도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함
- ⑪ 건축설계의 결과물은 즉시 나타나지 않음
 - 건축이 갖는 무형적 특수성이 있음
 - 이러한 무형적 가치를 건설회사의 단순 양도양수의 개념으로 넘겨줄 수 없음

〈다음회의 과제〉

- 대처논리연구(회의 참석 시 각자의 위원들은 과제 발굴 및 자료를 제출)
 - 건축문화를 저해시키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지?
 - 지식기반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지?
 - 건축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보도자료 작성
 - 임두기 위원과 조원용 위원이 함께 진행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보도 자료로 작성하고 박종철(총무) 위원이 총괄을 함
- 제2호 : 대책추진계획에 관한 건
 - 시·도건축사회에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키로 함.
 - 건교부에 건설업체 설계검업과 관련한 논의를 중지해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
 - 연대서명운동, 국회 항의방문 및 건교부장관 면담 신청
 - 5월 3일 시·도건축사회 회의 시 추진 경과 및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키로 함.

- 신문방송 보도
- 연구용역 : 외국사례조사, 위장계열사 조사, 건설회사의 악용사례, 자격대여 실태파악
- 토론회 개최(3~5회)
- 장외투쟁
- 설계검업 대처 T·F팀의 명칭을 정책개발 T·F팀으로 변경하고, 차후 이사회에 보고 키로 함.

■제1회 국제위원회

2005년도 제1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소회의실에서 지난 4월 28일 오후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도 국제행사 계획 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 UIA 이스탄불 총회 참석에 관한 건, APEC 건축사회의 참석에 관한 건, 한·몽 상호교류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5년도 국제행사 계획 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
 - 국제위원들의 전문분야를 파악하고 각 국제행사의 성격, 행사간의 연계성, 행사별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추후 확정키로 함.
- 제2호 : UIA 이스탄불 총회 참석에 관한 건
 -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참석자는 업무분장 및 아카시아 등 타 국제행사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기로 함.
- 제3호 : APEC 건축사회의 참석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 APEC 건축사회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건교부 소속 1인의 참석을 요청하기로 함.
- 제4호 : 한·몽 상호교류에 관한 건
 - 초청 시기는 9, 10월 중으로 하고, 단순 건축물 견학을 위주로 개최되던 과거의 초청형태를 벗어나서 양국의 실질적인 건축교류가 될 수 있도록 건축관련 전시

회 등의 프로그램 또는 서울시내 대학의 건축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제1회 전국건축사대회 합동준비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전국건축사대회 합동준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회일정에 관한 사항, 대회주제·로그·포스터 도안 선정에 관한 사항, 대회 지원금에 관한 사항, 스폰서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대회지 제작에 관한 사항, 현판식 및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대회일정에 관한 사항
 - 대회일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일정(안) 중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개회식 식순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 시 재논의하기로 함.
 - 1일차(05.6.24. 14:00~19:00)는 축구 시합, 미술 작품전시회 등 회원의 동아리 활동 위주로 준비하되, 축구시합은 정명욱 위원이, 미술 전시회는 최영집 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2일차(05.6.25. 10:30~12:20)의 세미나는 CM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주제로 본 협회에서 주관하고, 부산건축사회에서는 장소(임대료 포함)만 제공하기로 함.
 - 환영사(집행위원장), 축사(부산시장), 대회사(대회장), 치사(국무총리)의 순서는 정부의 의전관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함.
 -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결의대회의 성격은 지양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건축문화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결의문을 작성하기로 함.

· 대외 인사의 초청범위, 단상배치, 입장순서, 대회 진행 시나리오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대회주제, 로그, 포스터 도안 선정에 관한 사항

- 대회주제는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로 결정하기로 함. 다만, 부제(“건축사의 새로운 도전”)를 명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설명문 또는 토론회가 있어야 하므로 부제는 생략하기로 함.

- 2005 전국건축사대회의 영문표기는 「KIRA 2005 NATIONAL CONVENTION」으로하기로 함.

- 대회로그는 강석훈 이사가 제시한 로고 중 글자체와 영문표기 및 디자인을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함.

- 대회 포스터는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포스터(안)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함.

· 대회 지원금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승인된 지원예산(1억2천만원) 이외에 집행위원회에서 추가 요구한 지원금(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집행위원회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작성하기로 함.

- 스폰서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스폰서 업체의 확보 등 협찬금 모금에 대해서는 대회장과 집행위원장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함.

· 대회지 제작에 관한 사항

-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대회지 제작(안) 중 시·도건축사회 소개란은 삭제하고, 인물사진은 최소화 하되, 회원 미술작품을 포함하여 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도록 함.

· 현판식 및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현판식 및 차기 회의는 '05. 5. 24. 부산

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결정하기로 함.

■제1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6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사의 설계겸업 참여 허용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의 건, 건축물의 구조설계 기준 개정에 관한 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사의 설계겸업 참여 허용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의 건
 - 협회의 홈페이지에 “설계겸업”에 관한 토론방을 개설하기로 하고, 각 위원은 5월 10일까지 의견을 게시하기로 함. - 토론방에 게시된 의견은 「정책개발 T·F팀」(5/12)에서 논의
- 제2호 : 건축물의 구조설계 기준 개정에 관한 건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건축사 아닌 자가 서명날인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함.
 - 구조기술자의 협력대상범위 확대(16층→3층)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한 후 차기 회의(5/26)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문제는 시·도건축사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아래의 2가지만 건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로 함.
 - 건설설계용역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폐지
 - 부산시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임의규제 개선
 - 건축허가 시 조경기사의 날인 요구

→ 건축사의 확인으로 대세
 착공신고 시 상하수도 배수설비업 면허소지자와의 계약서류 첨부
 시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서울시건축사회,
 '2005 건축가족 한마음 서울사랑 걷기대회'**

'2005 건축가족 한마음 서울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5월 28일(토) 서울중요공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남산 백범광장에서 해단식을 가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건축가족 한마음 서울사랑 걷기대회'는 약 1천5백여명의 건축, 건축관련인, 가족들이 참가하여 시민과 함께 중요공원에서 남산 백범광장까지 약 5km 정도의 거리를 행진하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한편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도시 서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행사였다.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행사에는 이영희, 이경희, 장석용 공동대회장을 비롯하여 박진 종로구 국회의원,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여했다.



오후 4시30분경 해단식 장소인 백범광장에서 는 주워온 쓰레기를 치우고 뒷풀이 행사와 행운권 추첨 등의 행사를 가졌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한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장기태)는 '21세기 건강한 살림집 한옥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건축사, 공무원, 학생, 도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함께 지켜봤는데, 이날 토론회에는 김홍식 명지대 교수가 '21세기 건강한 살림집 한옥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약 1시간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천득염(전남대) 교수의 주재아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지정 토론에는 박강철(조선대)교수가 '전통한옥의 개량방안'을, 심국보(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개량한옥 목구조'를, 황혜주(목포대)교수가 '개량한옥의 황토 이용 방안'을, 김종현(전남대)교수가 '한옥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박문환(동부요업)대표가 '토기와와 사용과 개량'을, 이봉수(삼진건축사사무소)건축사가 '개량한옥 설계도서'를, 임태영(전라남도 개발건축과)과장이 '전라남도의 한옥시책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 후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문의 : 전라남도건축사회 062-365-9944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05년 5월 30일 현재)

우리협회 회관건립위원회(위원장 정정치)에서는 회관건립 사항을 전 회원들에게 알리어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모아 건축사들의 위상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의 회관을 건립하고자 '05년 6월부터 매달 우리협회 「건축사」지에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공사진행 현황

본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시공사인 남흥건설(주)과 '05. 1. 19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05. 2월 현장사무실 및 방음벽 설치 등의 가설공사가 완료되었고, '05. 3. 4일 기공식 이후 기존 건물의 2차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목가시설공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토목가시설공사의 진척현황을 보면 사업부지 서측 및 남측구간은 C.I.P공사가 완료되었고, 동측과 북측구간에서 C.I.P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POST PILE 공사를 포함하여 총 312개 C.I.P 중 213개가 완료되었다.

- 동측 구간(C.빌딩측) : 총 114개중 55개 완료
- 서측 구간(센서스빌딩측) : 총 59개 완료

- 남측 구간(전면도로측) : 총 76개 완료
- 북측 구간(단독주택측) : 총 20개중 14개 완료
- POST PILE : 총 43개중 9개 완료

공정현황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은 '05. 5월말 현재 5.91%(계획 12.4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토목공사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첫째, 인접지역 거주자들로부터 굴착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잦은 민원제기로 관할행정기관의 일일 공사시간단축 및 공휴일 일체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작업시간을 일부 제한받고 있으며, 둘째, 이에 따른 저소음·저진동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셋째는, 사업부지 서측 및 북측 C.I.P 공사구간(기존 건물옹벽 부분) 지반 하부에서 잡석콘크리트, 철근, 호박돌 등의 지장물이 일부 구간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장물 처리 및 C.I.P 천공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목가시설 공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흙막이 공법을 H-PILE+토류벽 콘크리

트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제6회 이사회('05. 3. 28)의 의결에 따라 2005년도 회관건립위원회(제3기)가 구성되어 '05. 4. 22일 제8회 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총3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8회 위원회 회의('05. 4. 22)에서는 향후 회관건립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9회 위원회 회의('05. 5. 2) 및 제10회 위원회 회의('05. 5. 18)에서는 회관 토목가시설 공사계획 조정사항과 설계계획 보완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설계·감리자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제기

우리협회 회관 신축대지 인접지역 거주자인 서측 서초효성빌라(인접 2세대) 소유주와 북측 단독주택(2가구) 소유주가 공동으로 이번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가옥균열 등의 공사피해에 대해 토지굴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를 중지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시공사인 남흥건설(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05. 6. 10일(예정) 1차 심문에 준비하고 있다.



공사현황



투시도



지장물제거 작업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성료

우리협회 여성건축사위원회(위원장 오경은)에서 주최한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지난 5월 27일(금)부터 28일(토) 양일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약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첫날 호암미술관과 연화장 견학을 거쳐 라비돌리조트 연회장에서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첫째 날, 제부에서는 개회식 및 만찬이, 제2부에서는 제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주요안건으로는 임원개선의 건, 차기년도 대회 개최 및 일정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행사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이재림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화는 오경은 회장의 개회사에 이은 김용서 수원시장과 최영근 화성시장이 축사를 하고, 우리협회 이철호 회장과 경기도 건축사회 조성원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과 경기도 건축가협회 김동훈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부의안건 협의에 들어갔다. 이어 제3부에서는 서강대 김인자 명예교수의 심리학 특강이 있었다. 이번 대회는 둘째 날 화성행궁답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차기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 300여 여성건축사회 회원을 대표해 수고한 지 순(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무소) 고문을 비롯한 문숙경(종합건축사사무소 예문), 오경은(피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에 이어 박영순(건축사사무소 상화) 건축사가 이번 총회에서 여성건축사회 새 회장에 선출되어 앞으로 여성건축사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문의 : 황정복 018-221-0680



건축계소식 archi-net

2005국제건축교육 심포지엄 개최

지난 5월 31일 13시부터 서울 중구 명지재단 빌딩 대회의실에서 '건축학교육인증 현안과 국가간 상호인증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의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의 환영사와 김석철 명지대 건축대학장, 김진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NAAB C&P Update & the Future of Global Accreditation Agreement'에 대하여 미국건축교육인증원 운영위원장 Sharon Matthews, 'WTO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협상 제2차 양허안'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FTA지역 교섭과 이호열 사무관, '영국 대학교 건축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김영애 건양대학교 교수, '미국과 한국의 건축교육 과정 수요인식에 대한 비교'에 대하여 이준석 명지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있는 토론에는 이선영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심재호(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건축사, 박종백(법무법인 세화)변호사, 박경립(강원대학교)교수, 최중현(우송대학교)교수가 초청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설립과 더불어 앞으로 중점적으로 토의 되어야 할 건축교육의 인증에 관련된 현안들과 건축시장 개방을 대비한 현안들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였고,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 미국 건축교육인증원 (NAAB)의 운영위원장인 Sharon Matthews씨가 초빙되어 미국의 교육인증기준의 내용 설명과 현재 논의 중인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현안들에 대하여 들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전국건축사대회 등 10여개 단위행사 개최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오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BEXCO)와 그랜드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에코포트 부산-아시아·태평양의 관문』이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제5회 건축문화제는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국제건축심포지엄', '전국건축사대회', '건축작품전', '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부산영상센터 공모전', '시민참여이벤트' 등 10여개의 단위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된다.

이 중 문화제에서 처음으로 기획되어 5일간 벅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BIFEA)'는 돌, 나무, 흙 등을 소재로 한 국내외 친환경자재업체가 참가, 친환경화적인 건축문화 조성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박람회와 더불어 친환경자재 관련 국제신기술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국제건축심포지엄'은 램 쿨하스 등 세계 유명 건축사들을 대거 초청했으며, 이와 함께 '세계건축가초대전', '부산건축대전', '실내건축대전', '세계도시건축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건축작품전'이 기획되어 있어 유례없이 알차고 풍성한 건축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5천여 명 이상의 건축사가 참가하

는 대한건축사협회의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연계돼 약 1만여 명의 국내·외 건축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올해는 '나도 건축가' 문 만들기, '우리 마을 만들기', '전국건축사 회화전'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기획되어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서학원 수련원(양산 배내골 소재)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디자인워크숍'은 국내·외 건축학도 120여명을 대상으로 해운대 역사주변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영상센터 공모전'은 지난해 조직위가 밝힌 바와 같이 실질적인 건축·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며, 세계적인 건축사 7인의 국제초대공모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영상센터 국제공모전은 부산국제영화제(10. 6~10. 4) 기간에 맞추어 공개작품 발표회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가려내게 된다.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BiFeA)

이번 문화제에서 처음으로 기획되어 일반인 및 건축 관련 관계자들에게 세계의 친환경건축자재를 소개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의 조성 및 대중화를 목표로 열린다.

- 주제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숨쉬는 친환경 건축자재전
- 일정 : 2005. 6. 24(금)~6. 28(화), 5일간
- 장소 : 벅스코 (2, 3A 전시장)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신기술 세미나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와 더불어 친환경기자재관련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수준 높은 친환경기자재박람회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세미나.

- 일정 :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 2회
- 10:30~12:00 / 다나카 요우이치(田中 陽一) / 기반조건에 관계없이 도포가능한 광축매 코팅재

- 15:00~16:30 / 노구찌 타카후미(野口 貴文) / 친환경건축 재료와 폐기물 재활용 기술
- 장소 : 벅스코 자재박람회 장내 특설 세미나홀

■부산국제건축심포지엄

좀체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유명 건축사를 대거 초청하여 건축계는 물론 문외한 대중들조차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초청건축사는 건축, 조경, 워터프론트, 도시 계획분야의 세계 권위를 자랑하는 램쿨하스(네덜란드), 맥스코긴(미국), 베르나드 프랑켄(독일), 더그알렌(미국), 조지 하이그리브스(미국), 승효상(한국) 등 총 6명이다. 강연회 참가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일정(시간/강연자/강연내용/참고)〉
- 6월 24일
- 14:00~15:30 / George Hargreaves /

- 해양건축과 워터프론트 / 하버드대 졸, 하버드대 교수
- 15:30~17:00 / 승효상 / 건축과 공공성 / 서울대 졸, 이로재 건축사무소 대표
- 17:00~18:30 / Doug Allen / 도시와 변화 / 하버드대 졸, 조지아공대 부학장
- 6월 25일
- 10:30~12:30 / Bernhard Frankен / 디지털 건축의 생성과 디자인 / 독일 담스타트대 졸, 남가주대 교수
- 14:00~16:00 / Rem Koolhaas / 영원의 건축 / 영국 AA School 졸, 하버드대 교수
- 16:00~18:00 / Mack Scogin / 기념비로서 건축 / 조지아공대 졸, 하버드대 건축대학장
- 18:00~19:00 / 최재필 (사회자) / 토론회 / 서울대 교수

〈행사 전체 일정표〉

일 차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 고	
6월 24일 (금)	11:00	12:00	제5회 건축문화제 개막식	벅스코 1층로비	시상식 포함 150~200인 초청 흥행회 세션
	12:00	13:30	개막식 리셉션	벅스코 202호	
	14:00	15:3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2 (조지 하이그리브스, 미국)	그랜드 호텔	
	15:30	17:0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1(승효상, 한국)	그랜드 호텔	
	17:00	18:3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3 (더그 알렌, 미국)	그랜드 호텔	
	19:00	~	시장주재만찬	미 정	
6월 25일 (토)	10:30	12:3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4 (베르나드 프랑켄, 독일)	그랜드 호텔	· 10:00~10:30 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 10:30~12:30 국제건축심포지엄&세미나 · 14:00~20:00 전국건축사대회 행사 * 16:30~18:30 국제건축문화제 참관 · 18:40~19:40 부산시장 초청의 광장 (벅스코 광장)
	12:30	13:30	심포지엄 간담회 (오찬)	미 정	
	14:00	16:0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5 (램 쿨하스, 네덜란드)	그랜드 호텔	
	16:00	18:00	국제건축심포지엄 강연 4 (맥 스코긴, 미국)	그랜드 호텔	
	18:00	19:00	국제건축심포지엄 토론회 (사회-최재필 서울대 교수)	그랜드 호텔	
	19:00	~	만 찬	미 정	
6월 26일(일)	10:00	18:00	친환경기자재박람회 & 건축작품전	벅스코	
6월 27일 (월)	10:30	12:00	신기술세미나 I - 「다나카 요우이치」	벅스코 특설무대	
	15:00	16:30	신기술세미나 II - 「노구찌 타카후미」	벅스코 특설무대	
6월 28일 (화)	10:00	18:00	친환경기자재박람회 & 건축작품전	벅스코	
	18:00	20:00	관계자 위로 만찬 - 행사미정 (문화제 및 관련단체 준비위원들)	미 정	집행위원장 주재 (미정)

■부산영상센터 국제건축공모전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10주년을 기념해 건립될 부산영상센터는 국제초대공모전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초대작가는 국외건축사 7명 내외로 선정하되 당선 후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진행토록 하여 국내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은 대륙간 안배, 설계비, 문화시설 설계경험, 연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해운대 센텀시티에 들어서게 될 부산영상센터는 지상 6층, 총 7,301평의 사업비 468억원을 들여 2008년 6월경 건립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7일(영화제 기간) 당선작 및 영화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린다.

■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흔적'을 주제로 국내학생 90여명과 국외학생 3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은 해운대 역사 일대를 보다 체계적인 공간계획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제안코자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동서대 교육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워크숍 개최에 앞서 6월 24일에는 주제 발표 및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8월 25일에는 한국전통마을을 찾아 건축투어를 떠난다.

■건축작품전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건축작품전은 2005년도 각 분야의 건축공모전 작품 및 세계 유명건축사의 우수한 건축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행사로서 2005심포지엄 초청강연자로 나선 건축사 3인의 '세계건축사초대전'을 비롯해 '부산건축대전', '실내건축대전', '세계도시건축전' 등 부산의 주요건축행사가 모두 집결돼 올 한해 부산건축계의 동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세계건축사의 작품을 부산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시민참여이벤트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축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건축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심어주며 건축문화제를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고자 '나도 건축가-문만들기', '우리 마을 만들기'가 기획되었고, 건축인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로 '전국건축가회화전'이 선보인다.

문의 :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
051-888-475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건축설계경기 공모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는 아시아 문화예술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건립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가칭)' 국제건축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한다.

정부는 문화를 통한 2만불 시대의 진입 및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위상 확보를 그리고 국가 차원의 문화 중심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광주 조성사업은 풍부한 전통과 현대예술의 자산을 문화산업과 연계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한 인권과 공동체 문화를 아시아 여러 민족과 교류 발전시키고 '생태와 조화된 문화도시', '도시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여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2010년에 핵심시설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으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명실상부하게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건축설계경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사업답게 국제건축가연맹(UJA·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며, 현상공모는 5·18 광주민중항쟁 25주년 기념일인 18일부터 실시되어 6월 27일 등록을 마감한다.

그리고 현상설계에 대한 질의응답 기간이 6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접수는

오는 11월 11일, 수상자는 오는 12월 2일 공모전 홈페이지(www.acc2005.org)를 통해 공개된다.

공모 방식은 일반 국제공개 경기형식으로 응모자격은 전 세계 면허소지 건축사, 건축사 집단 또는 면허 소지 건축사가 이끄는 팀 등이다.

1등 당선자에게는 상금 20만달러(2억원), 2등(2명) 5만달러, 3등(4명) 3만달러, 4등(10명)은 2만달러 등 모두 62만 달러가 지급되며, 당선작품 출품자는 추진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공모전의 해외 심사위원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리처드 잉글랜드(몰타), 켄 앙탈레이지아, 장영호(중국), 마르코스 노박(미국) 라이너 베르비츠(오스트리아) 등 세계적인 건축사들로 구성됐다. 또한 국내 심사위원으로는 김종성(전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정기용(기용건축소장), 김준성(건축사무소 힘마 파트너) 등이 선임됐으며, 송실대 철학과 김광명 교수가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국제 현상설계 공모 공고부터 등록, 작품 접수, 작품심사, 당선작 발표 등 업무를 총괄할 추진기획단 전문위원으로는 최재필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오는 9월 기공해 5·18 30주년인 2010년 5월18일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02-3704-3434, www.acc2005.org



제2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하는 제24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일정이 발표되었다. 이번 일정공고에는 일반공모전 위주로 발표되었으며, 기성작가전은 추후 별도 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사건-건축'이라는 주제로 원서신청이 시작된 일반공모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차 계획안 제출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건축대전을 '2005 한국건축문화제(가칭)'라는 명칭으로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 전시관에서 기존의 행사와 더불어 개최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서신청 : 2005. 5. 23.~06. 30.
- ※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www.kia.or.kr)에서 신청(우편, 방문 접수 불가) 가능
- 작품접수 : 1차 : 2005. 08. 19(금)
2차 : 별도 추후 공지
- 원서 및 작품계획안
 - 계획안 용지 : 규격 A3(29.7cm x 42.0cm), A3 2장 제출.
 - 1장에는 프로젝트의 계획서, 주제의 설정, 가치 등을 담은 설명문 제출, 1장에는 도면 등 도면상으로 시각적 표현
- 작품 제출 시 CD자료 별도 제출
 - 파일형식 : JPG(JPEG), 해상도 : 200dpi
 - 파일명 : 성명_원서번호.jpg(jpeg)
 - *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단,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전시장소 :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홀(1층)
- 전시기간 : 2005. 11. 23~27
- 출품자격 :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 명이는 2인을 초과할 수 없고, 작가가 2인인 경우 대표 작가는 1인으로 한 한다.
- 주제 : '사회-사건-건축'
- 심사위원 : 민현식, 박경림, 손기찬, 이영수, 이종건, 장윤규, 임재호

- 시상 : (일반공모전에 한함)
 - 대상(1점) : 상장, 상패, 상금 오백만원 및 UIA회장 메달
 - 우수상(3점) :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이백만원(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각 1점)*우수상의 경우 후원업체 등 추가시상 가능
 - 특선(약간점) :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일백만원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허유재병원(김영준)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김수근 문화상의 시상식 및 전시회가 6월 14일 오후 5시에 공간사옥마당에서 개최된다.

김수근 문화상의 후보작은 배재대학교의 국제교류관(유결과) 예술관(조병수), 일산 허유재병원(김영준), 파주출판도시의 열화당(김종규+플로리안 베이겔), 인사동 쌈지길(최문규) 등 다섯 작품으로서 심사위원회는 사흘간의 협의를 거쳐 김영준의 허유재병원을 올해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김수근 문화상은 두 단계의 심사방법으로 선정된다. 전문위원이 지난해에 회심(懷心)된 작품들 중에서 후보작들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을 조산(助産)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수상식에는 지난해 제15회 김수근 문화상 수상작품도 초청 전시되는데, 김병윤(백

제예술대 교수)의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약 보름간 공간사옥 전시장에서 전시된다.

문의 : 재단법인 김수근문화재단
02-743-7281

명승건축그룹, 스페인 도시전문가 마누엘 가우사 초청 강연 및 '사랑의 헌혈운동' 개최

종합건축그룹 명승건축(대표 이효추)이 지난 5월 1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건축가 마누엘 가우사(Manuel Gausa)를 초청해 '현대건축과 도시문화' 강연회를 강남 포스틸사옥 이벤트홀에서 개최했으며, 아울러 지난 25일 역삼동 사옥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혈액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현대건축과 도시문화' 강연회에는 학계 및 업계 관련자 200여명이 참석해 세계적인 도시전문가이자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누엘 가우사가 최근 자신이 맡아 작업해 온 '프랑스 36인의 건축사 프로젝트', '바르셀로나 자폐어린이 거주 주택 구성 프로젝트', '미래의 브뤼셀에 대



대한산업보건의회의 한미음 혈액원에서 나온 헌혈버스 속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명승건축 임직원들

한 공간 제시 프로젝트', '바르셀로나의 통신 탑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 강연에 몰입했다.

그는 강연회에서 "현대건축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가져오는 사회적 기능 또한 상호 연계적인 면을 고려해서 새로이 조명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축과 도시문화의 조건으로 자연과의 조화, 다양한 개성과 그것을 조율하는 능력, 동시성, 다양성, 원형성, 혼합성 등을 꼽으며 오늘날의 도시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건축물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명승건축은 지난 5월 25일 역삼동 사옥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혈액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바쁜 시간에 쫓겨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한마음 혈액원에서 헌혈버스를 보내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수집된 혈액은 혈액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문의 : 홍보대행사 맥스컴 오미연

02-573-4643

KCC, 프라이م 플러스(PRIME+) 출시

(주)KCC(대표 : 김춘기)는 고층 아파트 및 해안가 아파트 발코니에 적용이 가능한 PVC재질의 'KCC발코니창호 프라이مPLUS(PRIME+)'를 출시했다. '프라이مPLUS'는 아파트의 고층화 및 발코니창호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고층에서의 강한 풍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풍압 설계된 창호로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심의 고층건물, 해안가 아파트 발코니에서도 고기능성 창호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 형상에서부터 전체 창호 구조에까지 철저한 시험을 거쳐 설계된 고성능 발코니창호이다.

이미 국내의 대단위 고층 아파트 외벽 및 외

장재 시험성능소에서 내풍압 등의 창호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다. 프로파일 대형화 및 다격실 구조를 반영한 과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내풍압 성능 구현을 위한 코너 연결구, 풍하중에 의한 창짝 변형을 방지하는 고강도 금속 고정부재, 창짝 탈락을 방지하는 상하 ANTI-LIFT, 창짝 여밈대 부의 고충용 구조 보강재와 AL-SPACER 등 기능형 부자재를 적용함으로써 고충건물에 미서기 타입 발코니창호의 사용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안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한 미서기 타입 발코니창의 적용 범위를 고층아파트에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발코니창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프라이مPLUS는 창틀-창짝 간 중첩을 극대화한 프로파일 설계와 가스켓 및 모헤어를 통한 다중기밀구조(최대 5중 기밀구조)로 탁월한 방음, 방풍, 단열 성능을 발휘한다.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프라이مPLUS'는 기능형 부자재의 중후한 외관, 대형 프로파일과 더불어 다양한 라미필름의 적용으로 세련된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신제품 KCC발코니창호 프라이مPLUS(PRIME+)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실시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다하게 집중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의 발전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 등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이미지, 도시골격 등 도시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국제공모한다.

- 공모방식 : 국제 공개 아이디어 경기방식
- 참가자격 : 개인이나 법인이 단독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
- 참가자 등록 : 2005년 6월 1일 ~ 7월 11일
- 질의응답 :
 - 질의접수 2005년 7월 12일~25일
 - 응답 2005년 7월 29일
- 제출물 :
 - 제안설명서 : 20부, A4사이즈 50페이지 이내
 - 도판 : A1사이즈(594mmX841mm) 6개 규격의 크기로 구성
 - CD-ROM : 도판, 제안설명서를 포함 (300dpi 이상의 해상도)
 - 참가등록서
- 작품접수 : 2005년 10월 18일 ~ 25일(우편제출시 10월 25일까지의 발송날짜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10월 31일 오후 5시(한국시각)까지 도착하여야 함)
- 응모작품 제출처 : 국토연구원
- 심사 : 2005년 11월 11일 ~ 11월 14일
- 입상작 발표 : 2005년 11월 15일(홈페이지 게재)
- 심사위원 :
 - 심사위원(국내3인, 국외4인) : 민현식, 유걸, 온영태 David Harvey(Professor/

USA), Arata Isozaki(Architect/Japan),
 Dominique Perrault(Architect/
 France),Winy Maas(Architect/
 Netherlands)

· 예비심사위원 (국내인, 국외인) : 박삼
 옥, Tehrani(Architect,Professor/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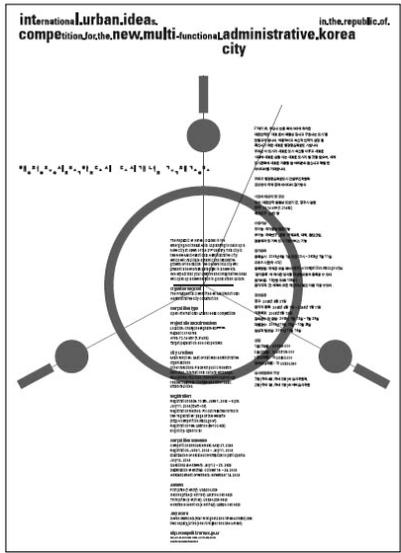
- 상금 : 1등 1작품 미화 20만불, 2등 2작품
 각각 10만불, 3등 3작품 각각 5만불, 장려
 상 4작품 각각 2만불이 지급되며, 1등, 2
 등, 3등 당선자는 기본계획 수립시 컨설턴
 트로 참여하거나 후속계획의 설계공모시
 지명초청으로 공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 제공자료 : 2005년 7월 12일 참가등록자에
 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다운로드)

· 수치지도(1:25,000) 및 기타 지도(위치
 도, 지형도 등)

· 대상지 사진(항공사진 포함) 및 동영상
 · 대상지 현황분석자료 등

문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홈페
 이지 <http://competition.macc.go.kr>



신간

복합체

신간 '복합체'는 정윤규(국민대 건축대학) 교수의
 저서로서 건축을 넘어 문화적 확장을 위해 '갤러
 리 정미스'를 운영하고 있고 '정윤규건축실험아
 트리에'를 건축가그룹 '운생동'으로 변화시켜 새
 로운 건축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그의 첫 번째
 저서이다.

저자는 그간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복합체를 구
 체화시켜왔다. 각각은 완성된 것이기 보다 개별적
 전달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설정에 다름 아니다.
 '반응체', '스킨스케이프', '트랜스프로그램', '트
 랜스스케이프', '부유체', '클립시티', '인터랙티
 브 맵' 등 이 책의 중심 메뉴가 되는 이들 각각의
 명제는 저자의 건축세계가 다양한 방식과 요소의
 결합으로 탐구된 변이의 한 표징임을 대변한다.

저자는 스스로를 욕망의 기계라고 말한다. 끊임없
 이 새로움을 찾아가는 욕망의 기계 말이다. 지식
 의 벽을 뛰어 넘어 정신병 못지않는 집착을 즐기
 는 저자의 건축사유를 따라잡는 이미지와 글의
 복합체적 배열이 독서의 재미를 더해주는 책이다.



장윤규 지음/250쪽/10,000원/간향미디어랩 간행
 02-3147-1212

**2005경향하우징페어
 Summer Festival**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경향하우징페어는 올 가
 을시장을 준비하는 여름, 각종 건축시장을 집대성할
 2005경향하우징페어 Summer Festival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여 간 개최한다.

이번 경향하우징페어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우
 리협회 및 회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건축산업 전
 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연 중 수 차
 례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건축산업 전시회에 참여하
 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되는 전시회로서
 국내외 다양한 건축자재를 선보이는 종합주택전시회
 로서 건축관련 중요한 정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우리협회를 통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회원
 사 및 건설자회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시지원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니 가능하면 우리협회를 통한 전
 시회 참여로 많은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 전시기간 : 2005년 7월 8일(금) ~ 12일(화)
- 전시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관
- 전시지원책
 - ▶ 『건축사』지 디렉토리 광고 게재
 - ▶ 전시회 참여협력사 인증서 발급(본 협회 인증)
 - ▶ 전시장내 협회정보센터 이용권
 - ▶ 전시정보 제공
 - ▶ 전시디자인 무료컨설팅
- 주 최 : 경향하우징, 경향신문사
- 후 원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 협 찬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공사, 한국주
 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운영실
 (Tel. 02) 581-5711~4)

※ 경향하우징페어 전시회 초대권이 필요한 분은
 우리협회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